

한국조선해양, 기술력 중심 '조선업'으로 재도약 선언

“R&D 5000명까지 확충... 친환경·스마트로 불황 극복”

권오갑 대표이사 첫 담화문

원가 줄여 승부하는 시대는 끝나
노동집약 → 기술 패러다임 변화
계열사 고도화·생산성 향상 도모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탄생한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취임 후 첫 담화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술력 중심의 조선업 재도약'이다.

권오갑 부회장은 11일 한국조선해양 대표 취임 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첫 담화문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은 기술 중심으로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지만 앞으로 '기술'이 최우선시 되는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모든 투자와 인력을 집중시켜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기술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가 될 한국조선해양이 기술 중심 경영을 통해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분할승인으로 현대중공업은 연구개발과 투자사업을 담당할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분할 신설 사업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어진 상태다. 추후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신설 사업법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권 부회장은 "원가를 줄이는 것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값싼 인건비로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등 후발업체와 러시아, 사우디 등 조선업 진출을 서두르는 자원부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판교에 건립예정인 글로벌R&D센터에 최대 5000명 수준의 연구개발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의 연구

개발인력은 4000여명 수준이다. 여기에 1000명 가량의 추가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연구개발인력이 한국조선해양의 미래이자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 인력이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업황에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 안정적인 단단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부회장은 "전 세계 해운시장과 조선시장의 변화와 추이를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남보다 앞서 관련기술을 개발해 신개념의 선박을 선보여 나가는,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친환경 선박, 스마트십 등 앞선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다면 업황의 부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수주로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 그것이 우리 한국조선해양의 사명이다"고 천명했다.

권 부회장은 한국조선해양이 그룹 조선 자회사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책임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은 물론,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자회사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갖추게 될 기술력이 각 계열사의 설계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제 일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 조선업의 산실인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일해 왔다"며 "한국조선해양의 성공, 한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주어진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로 선임된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위아와 인스텍이 함께 개발한 '3D프린팅 하이브리드 가공기'의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
공작기계+3D 프린터
하이브리드 금속 가공기
국내 최초 개발 성공

현대위아가 공작기계와 3D프린터를 결합한 차세대 금속 가공기 개발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현대위아는 금속 3D프린터 전문업체 인스텍과 함께 '3D프린팅 하이브리드 가공기'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가공기는 금속 분말을 쌓아 원하는 물체를 만드는 3D프린터와 금속을 공구로 깎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결합한 제품이다.

현대위아 측은 "3D 프린팅 하이브리드 가공기는 공작기계가 가진 높은 정밀도와 3D프린터의 편리함을 더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위아와 인스텍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개발을 시작,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현대위아는 하이브리드 가공기가 금속 가공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의 기계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위아와 인스텍은 오는 2020년부터 하이브리드 가공기를 상용화해 인공 고관절 제조 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판교 오픈랩 개방... "아무나 와서 5G 개발하세요"

판교 스타트업 캠퍼서 오픈랩 개소
전용 5G 네트워크 테스트 환경 제공

KT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일반 개발자 등 누구나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판교 KT 5G 오픈랩(open lab)'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KT 5G 오픈랩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 개소한 바 있다. 5G와 관련된 기술자원을 중소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개방형 협업 지원 플랫폼으로, 월 100명 이상의 사업자가 방문해 5G를 체험하고 있다.

KT는 개방형 협업 체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과 5G 서비스 개발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 문을 연 KT 판교 5G 오픈랩에서 이경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조광주 경기도의회 의원,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인회 KT 경영기획부부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부장, 전홍범 KT 융합기술원장, 박윤영 KT기업사업부부장, 이필재 KT 마케팅부부장, 김준근 KT 통합보안플랫폼사업단장(왼쪽부터)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KT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이번 판교에 5G 오픈랩을 추가 개소하며 판교의 유망한 스타트업 인프라와 협력해

KT의 5G 인프라·플랫폼이 결합된 창의적 서비스 발굴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 5G 오픈랩에는 5G 전용 실드룸을 통해 5G RU, 5G 단말 등 5G 네트워크 특화 장비를 활용한 5G 네트워크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5G 오픈랩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 KT 5G 오픈랩의 실드룸, 개발공간을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사업부서, 구매부서 등 여러 사내 부서들과 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5G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10일 판교 5G 오픈랩 개소식 기념으로 5G 기술과 개발사례를 공유하는 'KT 5G 플랫폼 개발자 컨퍼런스'에는 150여개사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오일로패스’ 인기 폭발... 13만명 넘어

SK에너지, 2030 여행 지원 프로젝트

지난 5일부터 시작된 SK에너지의 'SK오일로패스' 캠페인이 #여름휴가 #가즈아, #인싸템, #류준열 등 키워드와 함께 25-35세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SK오일로패스는 지난 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집계한 20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SK오일로패스' 캠페인은 SK에너지가 25-35세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여행 지원 프로젝트다. SK에너지는 25-35세 청년들 중 1000명에게 '5일 동안', '오일 가득히' 여행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주유카드를 제공한



다. 오는 25일까지 SK오일로패스 사이트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11일 현재 응모자 수는 13만 7000명에 달한다. 참여형 이벤트에서는 이례적인 숫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청년 세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 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로템, 美 윈드리버와 MOU 체결

자율주행 가능한 '열차 신호장치' 기술 확보

현대로템이 차세대 열차 신호장치 플랫폼 기술 확보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윈드리버와 차세대 열차 신호장치 플랫폼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윈드리버는 열차 신호장치에 적용되는 실시간 운영체제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번 MOU 체결로 현대로템은 무선 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열차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열차의 자율주행과 자동방호운전이 가능한 '유럽열차 제어시스템(ETCS) 3단계급'의 고속철도용 열차 신호장치를 개발한다. 또 윈

드리버는 자사의 운영체제 'VxWorks'를 통해 신호장치에 적용되는 실시간 운영체제 제공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신호장치 플랫폼이 적용되는 ETCS 3단계급 기술은 기존의 궤도회로 기반의 시스템에서 탈피한 무선기반의 신호시스템이다.

궤도회로는 선로에 열차 검지장치를 설치한 회로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선로용량 증대에 제한이 있지만, ETCS 3단계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선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을 2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